

‘중심’ & ‘바른 중심’ 은 무엇인가?

- 읽을 말씀 삼상 16:7
-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은 항상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중심이 바른 자를 선택하신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바른 중심’ 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중심은 우리의 속사람 즉 영(마음)입니다. 그리고 바른 중심은 우리의 영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의도 혹은 목적입니다. 이것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삼상 16:7). 여기서 “중심” 은 히브리어로 ‘레바브’ 이며, ‘내부인간, 마음, 정신, 의지’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중심은 속사람 즉 우리 영이 가지고 있는 의도와 의지를 뜻합니다. 성령님은 바른 중심에 대해 제 영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자기중심’ 의 반대가 ‘바른 중심’ 이다. 사람이 나, 내 교회, 내 사역 등 ‘자기중심’ 이면 그는 중심이 바르지 않은 것이다. 중심이 바른 사람은 ‘자기중심’ 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이다. 그리고 ‘이웃 중심’ 즉 전체 교회와 영혼들 중심이다. 이것이 바른 중심이다.”

이것이 바른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영을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그 강령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마 22:37-40). 따라서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 바로 영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바른 의도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중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이 되는 것이 바른 중심입니다.

일례로, 중심이 바른 사람이었던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골리앗과 싸울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삼상 17:45-46)라고 했습니다. 또 다윗은 백성 중심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백성이 왕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을 당연시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나는 범죄 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라고 말했습니다(삼하 24:17). 이처럼 바른 중심은 하나님 중심과 이웃 중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중심이 바르다는 것은 ‘사랑’ 을, 중심이 바르지 않은 것은 ‘이기심’ 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행 13:22)는 말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바른 분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중심이 가장 바른 분은 하나님이시고, ‘바른 중심’ 은 하나님 같은 중심을 뜻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는 말은 “다윗은 나와 중심이 같은 사람이라” 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고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른데 네 마음은 나와 같구나! 나와 통하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요일 4:8). 그러므로 ‘바른 중심’ 은 사랑이 충만한 것, 즉 이타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고전 13:5). 따라서 이기적이라서 ‘자기중심’ 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므로 ‘하나님 중심’ 과 ‘이웃 중심’ 인 사람이 중심이 바른 자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인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중심이 바르셨습니다.

또한, 성령님도 가장 탁월한 영이시고 영광 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동시에 사랑의 영이십니다(롬 5:5, 갈 5:22).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중심이 가장 바른 분입니다.

이처럼 성삼위 하나님은 온전히 바른 중심을 갖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마 22:37-40). 한마디로 자기중심에서 벗어나서 바른 중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인류는 자기애에 빠져 모두 자기중심적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처럼 되라고 말씀합

니다. 따라서 율법의 요구는 단순히 “거룩하게 되라” 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사랑이신 것처럼 이기심을 버리고 사랑하라 즉 바른 중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우리에게 바른 중심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나” 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9-10). 이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드릴 수 없는 기도입니다. 이어지는 11-13절에도 ‘나’ 는 없고 “우리 ... 우리 ... 우리” 입니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중심이 바른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나를 나로부터 해방시켜 주옵소서. 나를 나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사람 곧 중심이 바른 자가 되게 하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이고,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한편, 저는 “중심” 의 한자가 중심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중심은 가운데 중과 마음 심을 씁니다(中心). 합치면 충성 충(忠)이 됩니다. 충은 자기중심에서 벗어나 철저히 주군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바른 중심은 주군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충신처럼, 철저히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님과 영혼들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과 영혼들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심이 바른 사람입니다.

다윗은 중심이 바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간음을 하고 살인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사람은 단순히 간음을 안 하고 살인을 안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중심이 바른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결보다, 선행보다, 인격보다, 열심보다 중심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심보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면이 부족해도 중심이 바른 사람을 택하십니다. 반대로 다른 면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중심이 바르지 않으면 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중심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오래도록 ‘왜 인격이 훌륭한 목사들이, 성결한 목사들이, 사랑이 많다는 목사들이 교회나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지 않지? 왜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

이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고 당을 형성하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중심에 대한 계시가 임할 때, 비로소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중심에 대해서 알고 나면 사람들의 정체가 보입니다. 중심에 관한 진리는 우리 눈을 밝혀주는 안약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실상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중심에 관해서 알면 ‘기도를 많이 한다,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 인격이 훌륭하다, 전도를 열심히 한다’ 이런 포장의 일순간에 제거되고, 마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나의 근본과 실체와 본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중심에 관한 진리를 통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회개하되 단순히 습관적인 죄나 기록하지 않은 것, 인격의 부족,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한 것, 전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는 그런 ‘앞사귀’ 나 ‘가지’ 의 회개가 아니라 근본적인 ‘뿌리’ 의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심이 바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한나가 노래한 절대주권자이십니다(삼상 2:6-8). 그러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부하게 하고, 누구를 높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중심이 바른 사람입니다. 사람의 미래는 중심에 달려있습니다. 중심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하고 속히 자기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 나눔과 적용

바른 중심은 주군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충신처럼, 철저히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까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며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이기심을 버리고 주님과 영혼들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행하였을 때 맺게 된 열매들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어봅시다.